

성화 7: 성화는 목은 누룩을 버리고 순수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전5:1-8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여정으로 들어섰다. 성화의 세 가지 방해 요소: 세상, 육신, 마귀
지난 주 특별히 육신: 부패한 옛 본성, 성도에게는 새 본성이 창조된다. 두 본성이 매일 전쟁을 한다.

하얀 개와 검은 개, 늘 하얀 개가 이기지 않는다.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육신을 굶기고 새 본성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성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구원받고 믿음생활하며 성화의 길로 접어든 우리도 육신을 굶기지 못하고 잔뜩 먹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만 아는 죄가 있지만 어떤 죄는 모두에게 알려져서 교회와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경우도 생긴다. 전자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해 성화를 이루려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 >,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성도들 간에 성화를 이루는 문제

고린도 교회

성화와 반대되는 일을 가장 많이 한 교회, 그래서 서신이 매우 길다. 16장, 13장, 총29장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 항구 도시

이교도 우상 숭배, 음행, 세상의 각종 문물, 눈에 보이는 유행(fashion)이 만연한 곳(7:31)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간의 성화 문제: 파당(3-4), 음행(5), 결혼, 이혼, 우상 숭배, 부활 교리,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심하게 대적함, 헌금 문제

오늘 살펴본 5장은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성도의 음행 문제,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교회 내의 음행

5장은 교회 안의 음행으로 시작한다(5:1). 바울은 6장 초반부에 형제들 간의 법정 고소 문제를 다루다가

9절 이후에 다시 음행 문제로 간다. 그 정도로 여기의 음행은 바울을 화나게 하였고 나쁜 일이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 중 하나가 음행과 간음 혹은 성추행이다.

1.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상태와 행위들(6:9-11)

9-10절: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 상속은 아들에게만 준다(요1:12).

음행, 우상숭배자, 여성화된 남자와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들(롬 1:26-27, 고린도의 특성),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 등(대표 사례)

의미: 이런 데 파묻혀서 사는 자들(이런 것을 일삼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 들 가운데도 이런 죄들 중 어떤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

고전3:1의 육신적인 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 예를 들어 구원받고도 도둑질 하는 자, 욕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고전 5장의 음행하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불의한 자들로 보지 않고 아들로/성도로 보신다. 하지만 이런 특권을 남용하면 징계를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전5장의 음행하는 자처럼, 5:5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전적으로 육체의 소속대로 사는 자들이다. 설명,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본성에 속한 자들(고전2:14), 자연인

11절: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다(벧전4:3).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정죄에서 벗어났다(롬8:1-6). 하나님 보시기에 위치적으로 우리의 상태는 분리되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 1. 본성에 속한 자들, 2. 구원받은 자들: 이 안에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고 영적인 자들이 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육신이 약해서라고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

2. 바울은 지금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다(2). 이유: 교회의 어떤 지체가 드러나게 심각한 죄를 지을 때 이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그대로 두면 누룩처럼 퍼진다(6).

3. 오늘의 핵심 포인트: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1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심각한 죄가 있을

수 있다(엡5:3-4; 골3:5-9). 성화와 거리가 먼 사례

5장 강해

1-2절: 근친상간(레18:6-8; 20:11), 불신자도 하지 않는 행위, 여기의 여인은 불신자인 것으로 보임, 죽은 자를 위해 하듯 슬퍼해야 한다. 성도들이 울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타락한 이들을 쫓아내야 할 때가 있다.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특별히 목사나 리더가 여기에 연루되면 스스로 그만 두거나 내쫓아야 한다. 지금 서울, 부산...

3-5절: 주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 교인들이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바른 일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나(마7:1-5) 섬김 사역(고전4:5)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의 판단은 결국 드러내어 징계하는 일이다. 징계하는 일은 기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필요할 때 해야 한다. 특별히 외부로 드러난 죄는 교회의 공적 회의에서 드러나게 다루어야 한다. 불신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바울은 범죄자를 거칠게 다룬다(5:2; 5; 7; 13).

판단하는 방법: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한다(4). '이름'은 권위를 뜻한다. 이것은 판단하는 사람

역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해야 함을 뜻한다. 죄를 미워하는 심정, 형제를 사랑하는 심정 이것을 보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거룩함 유지 필수

바울 당시, 교회 회원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추천서를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당시 출교를 당하면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였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5)은 구원의 상실을 뜻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삶 속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요일5:5:16-17; 고전5:5; 고전11:28-30; 딤후 1:19-20; 딤후2:16-17; 요삼9-10)

구약 시대: 고라와 그 무리들(민16), 나답과 아비후(민3:4), 신약 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행5장)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민16:29-30).

누룩의 제거

우리의 죄를 누룩(이스트)으로 표현함

6-8절: 유월절과 무교절, 어린양의 피, 누룩 제거(출12:15)

렘23장의 일곱 명절, 순서가 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예수님의 초림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온다. 유월절 구원, 무교절 성화

말 그대로 이레 동안 누룩을 치워야 한다.

신구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죄를 뜻한다.

누룩은 작는데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소량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우리의 상태: 누룩 없는 자들(7), 위치적으로 그렇다. 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전히 땅에서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는 일이 매일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과 교회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과거에 늘 하던 일, 육신을 먹이면 곧바로 드러나는 일, 특별히 음담패설, 헛소문, 비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사람에게 악의(Malice)를 보이는 것, 사악함(wickedness)

두 단어(영어) 모두 마귀와 그의 사람들에게 속한 행위

이를 위해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명절을 지키자. 유월절이 아니라 주의 만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제, 명절 기쁜 모임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의 반대는 순수함과 진실함(8), sincerity, truth

Sincere: 순전하다, 순수하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편지를 쓴 뒤 미국 사람들은 sincerely yours라고 쓴다. 저 사람 참 sincere해.

사전: 성실한, 진실한; 충심으로의; 성심성의의, 정직한, 거짓 없는(honest) 《고어》 순수한(pure), 섞이지 않은(unmixed)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말씀, 순전한 말씀, 마제스티 에디션: 순전하다.

진실함은 truth, 사실만 말한다.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귀거나 개개인이 사귀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화의 삶을 살 때 순전한 언행, 진실한 언행을 해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성화를 망치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이 순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

1. 교만한 사람

구약성경의 핵심: 교만하면 패망한다.

교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사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 모임에서 꼭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려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모임에 참석하려 하지 않음, 어울리지 않음

늘 자기 자랑, 교회 5년, 10년, 목사나 사모 주변에서 열심히 일한다 등

2. 위선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인들

이것 형제님만 알아주세요. 형제님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조심해야 한다.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없는 데도 늘 포장한다. 허풍이 심하다.

사람의 눈에도 드러나는데 어찌 하나님의 눈에 안 드러나겠는가?

3. 이런 사람들의 특징: 결국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딤후6:5-10

결국 욕심, 과시, 위선, 교만으로 인해 자기를 찢어 꺾는 일이 생긴다.

고전5장의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에스더기의 하만, 여리고 정복의 아간

가롯 유다, 데마, 위어스비의 말: 그림자는 언제 제일 긴가?

결론

롬15:4, 우리의 배움, 고전5장의 사례, 음행하는 성도,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사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화를 이루려면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을 버려라.

위선, 교만, 탐욕, 허풍, 허세를 버리고 분수를 알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언행을 하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투명한 사람이 되라.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교만과 위선이 바뀌어야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진다.

딤후6:11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